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⑧ 축도생(竺道生)



▶ 한줄 요약
도생은 인도로부터 전래한 불교의 본의를 잃지 않고 가장 중국식으로 해석하여 불교의 중국화를 이룬 선구자로 불린다.

중국불교의 불성론과 돈오론 출발점

구마라집(鳩摩羅什)과 승조(僧肇)에 의하여 중국 반야학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중국불교의 불성론(佛性論)과 돈오론(頓悟論)은 바로 도생(道生, 약 372~434)에 의하여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불교학계에서는 도생을 인도로부터 전래한 불교를 그 본의를 잃지 않고 가장 중국식으로 해석하여 불교의 중국화를 이룬 선구자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인정은 바로 도생이 제시한 불성론과 그로부터 발현된 돈오성불론(頓悟成佛論)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도생의 '돈오론'은 이후 대부분의 종파에서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나아가서 중국불교의 귀숙(歸宿)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선(祖師禪)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선리(禪理)로 주장되고 있다.



도생은 '돈오론'을 제창해 최초의 돈점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은 한국 선방의 참선수행모습.

〈고승전〉과 〈출삼장기집〉에 실린 도생의 전기에 따르면, 어려서 축법태(竺法汰)를 만나 출가하여 스승의 성을 따랐기 때문에 흔히 '축도생'으로 칭하며, 15세에 이미 강좌(講座)에 올랐고, 20세에 불교계에 유명한 명사가 되었다. 동진 융안(隆安)년간(397~401)에 여산(廬山) 혜원(慧遠)의 문하에 들어가 약 7년간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등의 아비담을 배웠고, 그 후 구마라집이 장안(長安)에서 역경과 강의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혜원의 문도인 혜관(慧觀) 등과 함께 가서 '중관반야학'을 수학하였는데, 관중(關中)의 승려들이 모두 '신오(神悟)'라고 칭했다고 하며, 이후 구마라집 문하의 중요한 제자가 되었다.

도생은 이 시기에 중관학설을 깊이 깨닫고는 "경전이 동쪽으로 전해졌지만, 역경(譯經)하는 사람들이 거듭 막음에 많은 사람들이 글에 걸리고 막혀 원만한 뜻을 보는 사람이 적었다. 고기를 얻고 통발을 잊음에 비로소 더불어 도(道)를 말하리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격의(格義)적 방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경전을 번역하는 이들의 잘못으로 오히려 참다운 불법의 이해를 막았다는 질책이다. 이 구마라집 문하에 수학하던 시기에 '돈오의(頓悟義)'를 세웠다고 한다.

동진 의희(義熙) 3년(407), 도생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면서 승조의 〈반야무지론〉을 여산 문하에 전하고, 건강(建康, 지금의 南京)의 청원사(靑園寺, 후에 龍光寺로 改名함)에 머물렀는데, 당시 불교사에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6권 본 〈니원경(泥洹經)〉이 의희 14년(418) 건강에서 번역되는데, 이 경전에 '일체중생(一切衆生), 개유불성(皆有佛性)'의 사상이 들어있지만 '일천제(一闡提)'는 성불(成佛)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도생은 이 경전의 이치를 자세히 분석하여 미세한 부분까지 통찰하고 말하기를, "아! 일천제도 모두 성불할 수 있구나."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글에 걸리고 막힌" 많은 구학(舊學)들이 모두 도생의 주장에 반대하였고, 그에 따라 호구산(虎丘山)에 유배되었는데, 〈불조통기〉 권26에는 호구산에서 암석들에게 〈열반경〉을 강의하면서 일천제가 성불할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자 뭇 암석들이 머리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후 원가(元嘉) 7년(430) 다시 여산으로 들어갔고, 얼마 되지 않아 량(涼)에서 〈대반열반경〉이 번역되어 남방에도 전해졌는데,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도생의 탁견이 찬양 받게 되었다. 그 후에 〈열반경〉을 중심으로 한 '불성론'과 '돈오성불론'을 강의하였고, 송(宋) 원가(元嘉) 11년(434) 겨울 11월 경자일(庚子日)에 강설을 마치면서 정좌하여 그대로 입적하였다.

인도서 전래한 불교 중국화 기여
축법태 만나 출가스승의 性 따라
당시의 격의적 역경 비판 질책해
〈열반경〉중심의 '불성론'을 강의
송(宋) 원가 11년(434) 정좌 입적
'돈오론' 제창해 최초의 '돈점논쟁'
혜원 · 구마라집 문하 모두 수학

도생이 입적한 이후 보림(寶林), 법보(法寶), 도유(道猷), 도자(道慈), 승근(僧瑾), 법애(法瑗), 승종(僧宗), 법랑(法朗) 등의 뛰어난 열반사(涅槃師)들이 도생의 종지를 받들었다. 또한 도생이 돈오론을 제시하자 점오(漸悟)의 입장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반박하면서 역사상 최초의 '돈점논쟁'이 발생하였는데, 유송(劉宋) 문제(文帝)의 재위기간(424~453)에 황제에 의하여 돈오와 점오 사이에 그 승부를 가리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돈오론이 승리하게 되어 마침내 논쟁이 종식되었다.

도생의 저술들은 상당히 풍부하지만 대부분 유실되었다. 유실된 저술로는 유명한 〈돈오성불의(頓悟成佛義)〉를 비롯하여 〈니원경의소(泥洹經義疏)〉, 〈소품경의소(小品經義疏)〉, 〈이제론(二諦論)〉, 〈불성당유론(佛性當有論)〉, 〈법신무색론(法身無色論)〉, 〈불무정토론(佛無淨土論)〉 〈응유연론(應有緣論)〉 등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외에 제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저술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것은 〈법화경소(法華經疏)〉와 승조의 〈주유마힐경〉에 도생의 주석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량(寶亮) 등의 〈대반열반경집해(大般涅槃經集解)〉에 약간의 단문들이 인용되고 있고, 또한 '불성의(佛性義)'의 문답 가운데 다만 〈답왕위군서(答王軍書)〉(〈廣弘明集〉 卷18 所收)가 있을 뿐이다.

도생은 후대에 '열반성(涅槃聖)'으로 추대될 정도로 '열반불성론'에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적은 바로 인류문화사상사 가운데 그랑프리로 선정되어야만할 '돈오론'을 제창했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도생이 제창한 돈오론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도생은 당시 남방불교의 대표자인 여산 혜원과 북방불교의 대표자인 구마라집의 문하에서 모두 수학하는 행운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혜원이 제창한 법성론(法性論)과 구마라집의 실상론(實相論)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사상적 차별이 존재한다. 혜원은 윤회의 주체아(主體我) 탐구를 통하여 불멸하는 '신(神)'을 도출해내고, 그로부터 '법성론'을 제창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실체(實體)'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구마라집의 실상무상(實相無相)의 '실상론'에서는 이러한 '실체'적 관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궁극적인 개념에서의 충돌은 도생으로 하여금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어려서부터 아비담(阿毘曇)의 학설과 7년 동안 혜원 문하에서 현학(玄學)과 결합된 '법성론'을 수학한 도생은 그 충격이 더욱 컷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생은 바로 '실체'와 '실상'의 간극에 대하여 '리(理)'라는 개념으로 지양(止揚)하였다고 추론된다. 더욱이 남방불교의 특색이 바로 '의리불학(義理佛學)'으로 칭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존하는 도생의 저술에서는 '리'가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구마라집이나 승조와는 확연이 구별되는 점이다. 도생은 불(佛)을 "리를 깨달은 체[悟理之體]"로 규정하고, 〈법화경소〉에서 "'리'에 따르는 까닭에 불과(佛果)를 이루고, '리'는 부처의 원인[佛因]이 된다."고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를 통해 '불'을 규정하고, "이미 '리'를 관하여 성(性)을 얻었다면, 바로 속박이 다하여 열반(涅槃)이 감응(感應)할 것이다. 만약 반드시 열반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취하려 한다면, 곧 다시 열반에 속박될 것이다. 만약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려는 자는 곧 열반과 번뇌를 다르게 보지 않는 것이니, 바로 속박이 없는 것이다."고 하여 '열반'도 '리'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진리(眞理)는 스스로 그러하여[自然] 깨달으면 그윽이 부합(符合)한다. 진리는 차등이 없으니, 깨달음에 어찌 변화[易]를 용납할 것인가? 변화가 없는 체(體)는 담담히 항상 비추지만, 다만 어리석음을 따라 근본에 어긋남으로 깨달음이 내게 있지 아니할 뿐이다. 진실로 능히 이르러 구한다면, 바로 미혹을 되돌려 극(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여기에서 '리'의 성격을 '변화가 없는 체[不易之體]'로서 '담담히 항상 비춤[湛然常照]'이라고 하고, 이 본체적인 '리'를 참답게 구한다면 능히 '반미귀극(反迷歸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돈오(頓悟)'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한다고 하겠으며, 바로 '리'를 '지존(至尊)'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혜달(慧達)의 〈조론소(肇論疏)〉에서 '돈오'에 대하여 "'돈(頓)'이라 하는 것은, '리'를 나눌 수 없음[理不可分]을 밝힌 것이고, '오(悟)'는 지극히 비춤[極照]을 말한다. 불이(不二)의 깨달음으로 나눌 수 없는 '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리'와 지(智)가 함께 희석됨을 '돈오'라고 한다."고 도생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돈오'의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다. 부연하자면, '리'는 객관적 이법(理法)을 의미하고, '지'는 우리 존재의 주체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나'(能)와 '남'(所)이 함께 희석되어, 즉 불이(不二)의 상태가 되어 불역지체(不易之體)로서 담연상조(湛然常照)하는 불가분(不可分)의 '이극(理極)'에 도달하여 극조(極照)하는 것이 바로 '돈오'라고 하겠으며, 이를 '열반'이라고 한다. 이러한 '돈오성불론'은 당연히 일반적인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살십지의 경지에 올라 금강심(金剛心)을 체득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철저히 언진(言津,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도생이 제창한 돈오성불론의 내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돈오론'에 입각한다면, 기존의 교의(敎義)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배움이나 수행의 쌓임으로는 결코 '돈오'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배움이나 수행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의지[能]가 발현되어야 하고, 또한 그에 상응한 대상[所]이 현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돈오와는 어그러져버리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돈오에서는 차제(次第)나 수행의 계위(階位)는 인정되지 못한다. 그에 따라 당시 불교계에서 최초로 돈점논쟁(頓漸論爭)이 발생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돈오론이 승리하게 되었고, 후대에 모든 종파들에서 최고의 교의로 채택하였으며, 특히 조사선에서는 '돈오'를 극도로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생이 이룬 또 다른 업적은 바로 중국사상계에 '리'를 지존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후대 불교학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지만, 송명(宋明) 시기에 발생한 이학(理學)은 바로 도생의 '리'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이로부터도 도생의 뛰어남을 논할 수 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 염불전문 시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